제100회(제114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

본회의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23일 (화) 오후3시

제1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의사담당관 김대근)

(15시 14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대근** 지금부터 제1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 ·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일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문일권**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덕기 시장직무대리와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결산하게 될 제100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4일간의 예정으로 개회됩니다. 비록 업무가 폭주하는 연말에 짧은 회기로 개회되지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잠시라도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18일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계기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과 반목을 종식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합을 이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현실을 무난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절약정신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모든 공직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세로 국가의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행정으로 발생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조정이 필요한 조직을 찾아내어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한다는 각오로 시민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합시다.

다가오는 무인년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끝으로 제100 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대근**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1분 폐식)